

에너지 소비 10% 이상 급증

지경부, 1/4분기 6890만TOE 달해 ... 전력 12.4%로 최대

2010년 1/4분기에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전년동기대비 10%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식경제부에 따르면, 1/4분기 총에너지 소비는 2009년 1/4분기보다 10.9% 증가한 6890만TOE(석유환산톤)로 집계됐다.

경기 회복으로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늘고, 이상저온으로 난방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부문별로는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9.7% 증가한 5260만TOE로 전체의 58.3%를 차지했다.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설비 증설로 제철용 유연탄 소비가 61.6% 늘어나면서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을 끌어올렸다.

건물부문 소비도 이상저온 현상으로 7.8% 늘어난 1289만TOE를 기록했고, 공공·기타는 7.8% 증가했다.

최종에너지 기준으로는 전력 소비가 12.4% 증가한 반면, 석유 소비는 0.9% 늘어나는데 그쳤다.

지경부 관계자는 “2010년 1/4분기에 총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금융위기로 2009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”이라며 “소비증가의 상당부분은 경제성장과 이상저온 등 불가피한 요인과 관계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비중이 늘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”며 “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기회복 등으로 총에너지 소비 증가가 이어질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한편, 1/4분기의 총 에너지 수입량은 7129만TOE로 4.4% 증가했고, 수입액 기준으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30.6% 늘어난 297억달러를 기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18>